



공동체 소식



## 사순 제1주일

주님, 분노에는 더디시고 자애는 넘치시며,  
주님의 계약을 언제나 새롭게 하시기,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시기에  
저희가 마음을 모아 주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소서.



2월 기도지향

- 박재천 알베르토 / 박계숙 헬레나 가정
- 현교정 돈보스코 / 조경애 요안나프란치스카 가정

사순시기 운동

- 마니또 뽑기(기도와 희생 봉헌)
- 구역미사 및 판공성사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읽고 감상문 쓰기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8(토) 오후 5시 30
- 장소 : 로렌스성당(KU)

사순특강

- 일시 : 3/8(일) 중심미사
- 강사 : 샌루이스 성당 석근웅 요한 신부님(청주교구)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8(토) 오후 5시 30분
- 장소 : 로렌스성당(KU)

Unitas 청년 피정

- 일시 : 3/13일-15일(2박3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

기타

- 지난 설 명절, 음식 준비해 주신 구역회와 이웃을 진행해 주신 행사분과에 감사드립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와 예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2/22(일) 중심미사 후, 구역회의 있습니다.
- 신심서적 '차쿠의 아침'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를 맞아, 캔사스대교구에서 Rice Bowl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순시기 동안 희생과 절제를 정성껏 봉헌합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9	217	169/152	118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안광민 야고보 김준영 요셉	이원준 요한 정예진 한나
차주	정병훈 보니파시오 김준영 요셉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네스	은유나 요안나 선하서 미카엘라
차주	박혜정 카타리나	김화년 요안나 신혜경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김계숙, 조경희
차주	김경돌, 박정자, 양정희, 한순례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b>2/15</b>	85명	348불	500불
김정원, 김호원, 조지연(총 3세대) ☎ 교육부 도네이션, 익명 5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한 지난 재의 수요일 예식에서 우리는 머리에 재를 받으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아, 흠에서 왔으니, 흠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하는 권고를 들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진리의 길을 보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에 함께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새롭게 봉헌합니다.

### 그림 묵상

#### 회개의 시작인 사순절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고독하게 앉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속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때인 사순절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미연 소화대레

제 1 독서 : 창세기 9,8-15 <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와 맺은 하느님의 계약 >

화 답 송 :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이에게는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이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만을 걷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
- 불쌍히 여기심을 주님 돌아보소서. 영원하신 그 자비를 헤아리소서. 주님 어지시오니 자비하신 그대로 저를 살피 주소서. ◎
-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이로라.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겸손한 자 의를 따라 걷게 하시고 겸손한 자 당신 도를 배우게 하시나이다. ◎

제 2 독서 : 베드로 1서 3,18-22 < 이제는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르코 1,12-15 <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

# 쉐 마 사순시기 교황 담화문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야고 5,8)



사순 시기는 온 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신자에게 쇠신의 때, “은혜로운 때”(2코린 6,2)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를 애써 찾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지내고 편안할 때, 잘 지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무관심 속에 빠집니다. 이 담화에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관심의 세계화입니다. 이웃과 하느님께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무관심해지지 않고 쇠신을 위하여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1.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1코린 12,26) - 교회 :** 하느님의 사랑은 교회의 가르침과 그 증언을 통하여 무관심이라는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사들을 받을 때, 특히 영성체를 할 때에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이기엔 무관심이 몸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인들의 통공으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사를 공유하며 이 은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눕니다.

**2.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창세 4,9 참조) - 본당과 공동체 :** 이 모든 것은 우리 본당과 공동체의 생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상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으로 무관심을 이긴 공동체가 됩니다. 천상 교회의 성인들은 우리의 여정에 늘 함께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지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 받고 신음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의 승리에 대한 천상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신을 벗어나 가난한 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과 함께하라는 부르심을 받아 파견됩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웃 안에서 형제자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지닌 모

든 것은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한 선물입니다. 우리 본당과 공동체가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비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3.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야고 5,8) - 모든 그리스도인 :** 우리는 무관심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자신이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느낍니다.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상 교회와 천상 교회의 일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힘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3월 13일과 14일에 ‘주님을 위한 24시간’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선 행위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우리가 한 인류 가족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고통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형제자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겸손되이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혼자 힘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사악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무관심과 혼자 힘으로 충분하다는 우리의 자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느님께 열려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형제자매에게 다가가도록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거저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청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굳세고 자비로운 마음, 세심하고 너그러운 마음,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무관심의 세계화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으로 저는 모든 신자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사순의 여정을 지내며 열매 맺기를 기도드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 주춧돌

## 제 2 편 은총의 샘인 성사와 기도



### 제11 장 청원 기도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들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태 7,7-9)**

#### 【주석】

**주실** : 직역하면 ‘주어질’이란 뜻이다(주석 성경, 신약, 64). 마태 18,19에서는 함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고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얻을** : 직역하면 ‘발견할’이란 뜻이다(상동).

#### 【설명】

▶ 왜 청하는가? 청하는 이유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청하여라.” 하고 가르치신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녀가 신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 청하듯이 우리도 신뢰심을 가지고 청해야 한다.

▶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나의 것으로 선택하여 제사의 집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에 흑사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신들을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내가 눈을 뜨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2역대 7,12-15).

#### 【교회의 가르침】

▶ 탄원(supplicatio)이라는 낱말은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곧, 청원하다, 애원하다, 끈질기게 청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 울부짖다 등의 의미와 “기도를 통한 줄다리기”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형태는 청원이며, 이는 청원이 가장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청원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원(起源)도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역경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는 주인도 아니며, 우리의 궁극 목적도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버지께 등을 돌린 죄인임을 알고 있다. 청원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섬을 의미한다(가톨릭교회교리서, 2629항).

▶ “저희에게 주소서.” 이 말은 자기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뢰이다. “아버지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마태 5,45).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생물에게 “제때에 먹이를”(시편 104[103],27) 주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청원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가톨릭교회교리서, 2828항).

#### 【어록】

▶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단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나 어떤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더 오랜 세월 동안 열렬한 기도와 크나큰 희생과 힘들고 지루한 극기와 보속을 하느님께 바치셨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모범을 목상하는 때에 저는 어떤 정신으로 고무되는지 모르겠습니다(최양업 신부).